제주도, 막판 표심잡는다

12일, 세계 7대 자연경관선정시 공영관광지 공짜 개방

제주 주상절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의장 문대림)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시 도내 공영관광지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하게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전격 수용해 지난 3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문광위(위원장 신관홍)는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관광지 25개소 무료관람을 통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준 도민과 내외국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7개 경관 선정 홍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헌신적으로 투표해주신 국민과 세계 시민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의적절한 도의회 제안을 받고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연말까지 약 15억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이 된다면 내외국인의 성원에 비할 수는 없으며, 11월 11일 저녁 8시 11분까지 모든 국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막판 표심을 잡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대림 도의장 역시 "도민의 대표로서 도의회가 먼저 도민에게 보은에 대한 보답을 하고, 내외국인에게도 감사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1일 한라산에서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기원제 봉행했던 자세로 최종 투표일까지 제9대 도의회가 앞장서서 선정 역량을 배가시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성산일출봉을 비롯한 무료개방 예정인 공영관광지는 25개소이다.

아.태 항공사 대표 서울하늘아래 집결

아시아나항공 제55차 AAPA 총회 주최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지난 3일~4일 양일간 서울(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5차 AAPA (Association of Asia Pacific Airlines : 아시아 태평양 항공사 협회) 사장단 총회를 주최했다.

금년 총회에는 2011년 회장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 AAPA 앤드류 허드만(Andrew Herdman) 사무총장,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 일본 ANA항공 이토 신이치로(Ito Shinichiro) 사장, 홍콩 캐세이 퍼시픽항공 존 슬로사(John Slosar) 사장, 말레이시아 항공 아흐메드 자우하리 (Ahmad Jauhari) 사장 등 15개 회원사 중 12개 항공사의 대표와 싱가폴 항공 등 3개 항공 사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은 "고유가와 유럽발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 항공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 지역 항공사는 2011년 약 23억불의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고 밝히며 "금번 총회가 아·태 지역항공사들의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아.태 지역이 명실공히 전 세계 항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밝혔다.

금번 총회의 주요 의제는 ▲여행객 및 항공산업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신설 및 인상 자제 ▲여행객 편의를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입국심사 제도 개선 ▲항공보안과 승객편의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안정책 수립 요청 ▲활주로, 터미널 등 국가차원의 항공인프라투자 확대 ▲EU ETS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회장사로 선정된 이후 ▲방콕에어 웨이스 신규 회원 영입 ▲AAPA 아?태지역 항공 대표로서의 위치 격상 ▲ICAO 내 AAPA지위 확립 ▲미국, 유럽 등 항공규제정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아시아나, 태국 수해주민 지원

방콕지점 통해 생수, 컵라면, 담요 등 생필품 전달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태국 재난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긴급 전달한다.

아시아나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오후 6시20분 인천~방콕을 운항하는 OZ741편을 통해 생수 2천박스와 컵라면 1천박스 및 기내 담요 1천장 등 생필품 위주의 구호물품을 수송했다.

윤영두 사장은 28일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태국으로 전달될 구호물품을 직접 트럭에 실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실의에 빠진 태국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은 5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 생수 등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구호물품은 방콕지점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인회 및 태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과 올해 3월 일본 대지진 발생시에도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항공사로써 취항지에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일공동승차권 판매대행사 지정

코레일관광개발 참여 서비스 수준 높일 것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코레일관광개발(사장 방태원)을 한일공동승차권 총판매 대행사로 새롭게 지정해 지난 3일부터 판매토록했다.

한국과 일본의 철도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일공동승차권은 서울~고쿠라 간 107,000원, 서울~하카다 간 115,700원, 서울~오이타 간 127,600원 서울~오사카 간 182,400원 서울~도쿄 간 262,300원 이다.

한일공동승차권은 1988년 7월부터 발매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한일 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 셀러로, 한국철도와 일본철도를 양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연결해 여행객이 한 장의 여행권으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열차 내 승무사업과 해외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을 신규 판매대행사로 지정함에 따라 한일공동승차권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24년의 역사를 지닌 한일공동승차권을 통해 이용객들이 즐겁게 양국의 철도를 경험하고 여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여행센터(서울역 02-3149-3333, 대전역 042-259-2451, 동대구역 053-940-2223, 부산역 051-440-2513) 또는 코레일 관광개발(1544-77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항공, 11월 온라인 할인 이벤트 실시

싱가포르 항공은 오는 11일까지 싱가포르 항공 웹사이트(www.singaporeair.com)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미국, 호주 지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온라인 고객에게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싱가포르항공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이코노미석 기준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을 1인당 56만 7천 5백원부터(2인 출발 기준) 제공하며, 샌프란시스코는 1백 25만 7천원부터, 발리 및 푸켓, 코사무이는 79만 3천 8백원부터, 시드니와 멜번, 퍼스 등 호주 지역은 1백 26만 6천1백원부터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 요금은 유류할증료 및 각종 세금,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것이며 여행 가능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한편,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싱가포르항공 웹사이트를 통해 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및 호텔을 함께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롯데백화점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환승하는 모든 승객에게는 20싱가포르달러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상품권은 창이공항 내 인포메이션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항 내 상점이나 식당에서 사용 하거나 '앰 배 서 더 트 랜 짓 라 운 지'(ambassador transit lounge)를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싱가포르항공 홈페이지(www.singaporeair.com)를 통해 가능하다.

KATA, 런던국제관광박람회 홍보단 파견

구미주 지역 겨냥 방한여행상품 판촉활동 전개

KATA(회장 전춘섭)는 7일부터 10일 까지 영국 런던 엑셀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1 런던국제관광박람회(WTM)에 홍보판촉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KATA의 구미주 지역 인바운드 실적 보유업체 7개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KATA 판촉단은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홍보관내 부스에서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등 방한여행상품 홍보 활동에 임하게 된다.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 KATA는 왕복항공권과 판촉을 위한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여행사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데, 특히 KATA의 전춘섭 회장이 몸소 대표단과 함께 참가해 구미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고 및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KATA는 지난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TB에도 대표단을 파견해 업체들의 현 장계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활동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지역에서 불고 있는 K-POP 열풍 및 한국방문의 해, 2012 여수세계엑스포, F1 등 빅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여 행상품의 활발한 판촉이 방한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교통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우리 서울시마을버스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 공기복

이사장 공기복
부이사장 박대규
부이사장 최종열
부이사장 박양곤
감사 최승훈
감사 윤필중
이사 김성한
이사 이병성
이사 정재효
이사 오봉규
이사 오천진
이사 박병서
이사 박정섭
이사 김창동
이사 전정일
이사 이각노
이사 김문현
이사 강기윤
이사 김종대
이사 김금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외 사업자 일동